

우리 이제 '공존'을 이야기하자



극단 동당애의 '우리는 물건이 아니야'



리투아니아 해외 초청작 '파우스트는 죽었다'

11~16일 광주국제평화연극제 동산아트홀·예린소극장 등 3곳 리투아니아 작품 등 12개 작품 인터넷 예매... 전석 무료 공연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유스퀘어 동산아트홀과 예린소극장, 공연일번지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사)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광주국제평화연극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만연해진 개인주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정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극을 통해 함께 공존하며 돕고 살아가자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상생, 함께 공존하며 살다'를 주제로 정했다. 광주국제평화연극제는 2003년 광주공연예술축제로 시작해 2005년 광주국제평화연극제로 거듭나며 '소통', '정의, 역사 속에서 찾다', '공감' 등을 주제로 매년 개최돼 왔다. 이번 연극제에서는 해외 초청공연,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막극 경연, 외부 초청 공연과 지역 극단 주제공연 등 12개 작품이 유스퀘어 동산아트홀과 예린소극장, 공연일번지에서 선보여진다. 먼저 첫날인 11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리투아니아의 초청작품인 '파우스트는 죽었다'가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작품은 마크 라벤힐의 인간 존재에 대한 두번째 희곡으로, 작품 속 주인공인 한 철학자가 '더 단순하게' 살기를 결심한 뒤 강렬한 페락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기적인 인류 발전 끝에 서있는 목격자이자 참여자로서, 인간을 집어 삼키는 것들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12일에는 극단 사랑의 '위로', 극단 시민의 '아 이러니', 극단 곡두환영의 '사각지대', 극단 마고의 '사탄 동맹' 무대가 공연일번지와 예린소극장에서 관객들에게 공개된다. 극단 몸.살 컬렉티브의 '아나스타티카'와 극단 까망의 '변신'은 13일 공연일번지에서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7시 선보여진다. 같은 날 예린소극장에서는 오후 3시 창작집단 해화살롱의 '덕구의 봄 날'이, 오후 8시 창작집단 지오의 '양팔저울'이 펼쳐진다.

이어 공식초청작인 극단 동당애의 '우리는 물건이 아니야'가 14일 오후 7시 30분 공연일번지에서 진행된다. 연극은 인간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유기견의 시선에서 바라본 인간의 세상을 통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지속될 수 있음을 얘기한다. 15일에는 극단 예린의 주제공연 '유혼'이 오후 7시 30분 예린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작품의 배경은 80년 5월, 최루탄 가스가 난무하는 금남로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던 한 시민군이 쓴 기관총탄에 쓰러진다. 시민군의 어머니는 40여년간 수모와 멸시 속에 살다가 곳이 되어 아들의 혼백을 부른다. 이에 차갑고 어두운 구원을 맹목된 아들은 어머니의 부름에 응답하고 어머니는 고통스런 아들의 낯을 감싸 안아 위로한다. 마지막날인 16일 오후 7시 10분에는 공연일번지에서 단막극제 시상식과 함께 폐막식이 치러진다. 이어 극단 Y의 '죽음과 소녀'를 마지막으로 연극제의 막을 내린다. 예매는 예매 페이지(<https://naver.me/GVW8ZO09>)를 통해 가능하며, 모든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김다인 기자 kdi@

포스트휴먼 시대, 글쓰기는 유효한가

광주 출신 이송희 시조시인, 평론집 '유목의 서사' 펴내



"과연 기계는 인간 고유의 정신이나 의지를 대체할 수 있을까? 특히 인간의 정서 표현과 상상력을 극명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글쓰기인데, 이러한 글쓰기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 시 쓰는 시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기계가 구현해내는 언어의 한계는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주 출신 이송희 시조시인 이 평론집 '유목의 서사' (더푸른)를 펴냈다. 이번 책은 시인이 여러 지면에 발표한 글을 모아 엮은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학의 오늘과 미래를 진단하는 담론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포스트휴먼 시대 과연 글쓰기는 유효한가, 라는 의문을 던진다. 문학이 지니는 맹점을 비롯해 의미의 지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는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디지털 공간을 떠도는 담론을 위시해 미안마 군부 쿠데타와 같은 폭압적 현실을 모티브로 전개된다. 이 외에도 자본주의 시대 풍속과 일상을 형성화 한 시인들의 서정 세계를 들여다본다. 2부는 주로 자유시의 해설과 작품론으로 구성돼

있다. 시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방랑자의 고백, 자기대면과 존재의 인드라망, 슬픔과 마주하는 방식 등의 글을 통해 시인들의 개성적인 화법과 비유의 방식 등을 읽어낸다. 3부는 문학의 본질과 언어의 양식에 초점을 맞춘 글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자기 인식과 외연으로의 사유, 비우고 돌아보고 들여다봐야 보이는 것들, 혼돈과 질서를 넘어 자연으로 등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공간을 인식하고 시 읽기의 즐거움을 풀어낸다. 한편 이송희 시인은 전남대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에 당선됐다. 고산문학대상, 오늘의 시조시인상을 수상했으며 시집 '환절기의 판화', '아프리카 숲' 등과 평론집 '길 위의 문장', '거울과 응시'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만추의 밤 적실 '목소리'

장호영 독창회, 10일 광주디엠홀... 피아니스트 천현주 반주



'마음을 전하는 테너' 장호영(사진)의 독창회가 10일 오후 7시 한옥콘서트 홀인 광주디엠홀에서 열린다. 심장으로 노래한다는 음악성에 대한 찬사를 받은 장호영은 공연을 통해 저음부터 높은 음역대까지 다채롭게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 올리는 곡은 '주여 자비를', '상냥한 요정 딸린코니야', '벃사공', '넌 왜 울지 않고', '무정한 마음' 등 12곡이다. 반주에는 광주대학교 음악학과 외래교수이자 (사)빛소리오페라단 음악코디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천현주가 함께한다. 테너 장호영은 대가들의 소리를 들으며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떠났던 이태리 유학 중 마주한 감성과 언어, 나폴리 방언과 프랑스 아리아의 감수성을 이날 무대를 통해 펼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과를 졸업한 뒤 이탈리아 로마 A.I.D.M 아카데미를 졸업한 장호영은 현재 이탈리아 Il Seminario 시립음악원 외래교수를 맡고 있으며 세계슬로우 푸드 협회 홍보대사, 안중근기념사업회 광주지부 문화예술위원장, 시문학박사기념관 인문학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전화(062-227-7440)로 예매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 확대

무각사·예술공간 집 등 활용...관광 활성화 2일권 입장권 개발

내년 4월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공간이 대폭 확대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행사 개막을 150일 앞두고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이외에 최종 전시 공간을 확정지었으며 참여작가들도 리서치를 위해 광주를 찾는 등 비엔날레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과 함께 예술공간 집, 무각사 등지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 (재)광주비엔날레와 큐레토리얼팀은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 전시 장소로 활용할 대안공간을 지속적으로 리서치해왔다. 재단은 또 많은 외지인들이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서 광주의 문화예술 공간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일권 입장권 등을 개발했다. 참여 작가들의 광주 방문과 현지 리서치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고이즈미 메이로는 지난 10월 광산구에 자리한 광주고려인마을을 방문, 마을주민 및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리 유코는 지난 9월 전시장이 위치한 양림동 일대를 방문, 장소특정적 키네틱 구조물을 작업하고 있다. 김순기 작가가 전남여고생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국 여성 작가들의 시를 낭독하는 모습을 촬영했으며 캔디스 린은 국립광주박물관 등을 방문, 전통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다. 지난 4월 베니스에서의 해외홍보설명회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런던에서 세계적인 권위의 영국 현대 미술 전문지 '아트리뷰(ArtReview)'와 공공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위상을 높이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80여 명 작가가 참여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 간 개최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아시아스토리 공모전 대상 '화조사 연정'

열네가 될 위기에 처해 보살을 의뢰한 과부를 만나는 화조사의 이야기를 다룬 '화조사 연정'이 제3회 'ACC 아시아스토리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김주원 씨. 또한 박세진의 '정호(실수해 드립니다)'와 권영민의 '공중전화 아홉마, 마위'가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3일 ACC에서 제3회 ACC 아시아스토리 공모전 '새로운 등장인물

을 찾습니다' 시상식을 개최했다. ACC는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장려상 10편 등 총 17편 작품에 총 상금 900만 원을 수여했다. 특히 최종 수상작은 공연화 검토를 거쳐 향후 시범공연 등 콘텐츠로 개발된다. 대상 수상자 김주원 씨는 "작품이 의미 있는 공연으로 개발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엔 총 417편의 스토리가 제출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